

# 캠퍼스에 절·교회 세워도 돼?

## 종자연 '대학설립... 규정' 개정령 반대의견서 제출

대학 캠퍼스 내 종교시설 건립 등을 가능토록 한 법안(대통령령)이 추진돼 불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가 1월 9일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29일 반대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종자연은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을 무시한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대학 교육 이념 훼손 △조각간 위화감 조성 △교육시설 이용시 출입감요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개정령에 따르면 개인 및 기관이 사립대학 안에 사찰·교회 등 종교 시설을 비롯해 쇼룸, 헬스클럽 등 각종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막강한 자금동원력을 바탕으로 한 대형교회들이 기부금 등을 대가로 대학 내 교회설립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현재 종단 내 반대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공식의견서 전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온대처를 두고 교계 일각에서는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종자연이 교과부에 이의신청한 29일 법칙 이의신청 마감날로 지금 검토 중인 것은 책임회피를 위한 면피용 발언이라는 비판이다. 한편,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20일 동안 언론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될 시 검토 및 처리절차를 밟아 해당단체에 재정보고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법제처 법령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된다. 노덕현 기자 dhavaia@buddhapia.com

# 미륵사지 세계문화유산 추진

## 전북도 익산역사문화지구 8대 과제 발표

최근 석탑서 국보급 유물 505점이 발견된 미륵사지(국보 제11호, 분지 제716호 보도)를 포함한 익산 지역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전라북도(도지사 김완주)는 1월 29일 '익산역사문화지구 역사교과서 및 유네스코 등재 추진' 등 8대 과제를 발표했다. 유네스코 등재는 익산시 왕궁면·금마면 일원의 문화유산과 미륵사지 등을 종합 보존·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28일 국토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을 초청해 향후 계획을 논의했으며, 우선 2월 중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하기로 했다. 잠정목록은 세계유산 등재 타당성을 정부가 인정할 국내 후보를 말한다. 이의 8대 과제는 △사리장엄구 등 국보급 유물 도내 보관 전시 방안 추진 △역사적 가치규명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우수성 지속적 홍보와 관심유도 방안 추진 △금마면·왕궁면 일대의 문화유적과 관광사업 연계 방안 수립 △미륵사 복원 및 주변정비 추진 △미륵사지유물관의 국립박물관 승격 건의 △관계전문가 및 민간협력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이다. 김진성 기자

## 용호종합복지관 '설맞이 사랑나눔 한마당'



용호종합복지관(이장 해충)은 1월 22일 '설맞이 사랑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행사에서 200여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 총 400여대에 떡갈떡과 생필품으로 따뜻한 정을 나눴다. 박지현 기자

## 봉은사 해 백남준 3주기 추모제 봉행



서울 봉은사는 1월 29일 경내 법당에서 해 백남준 선생의 3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유족과 일본 백스튜디오 관계자,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과 100여 신도가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 관음정사 부산 동구청에 쌀 50포 보시



부산관음정사(주지 유심)는 1월 21일 부산 동구청에 부산지역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 쌀 10kg 50포를 전달했다. 관음정사는 매년 2회에 걸쳐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 안양불교대학 독거노인 등에 쌀 전달



조계종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주지 현호)은 1월 22일 안양시 31가동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62명에게 쌀 20kg 1포씩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안양시 법륜회개년특시 봉사자들의 택시 운송 지원으로 각 가정으로 직접 전달됐다. 조동섭 기자

www.buddhabook.co.kr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 02)953-7181

# 불교무형문화유산 조사보고서 발간

## 조계종 문화부 "보전 기반 마련하고자"

불교의식의 백미로 꼽히는 영산재, 화려한 색채예술인 단청 등 불교의식 및 예술 등 불교무형문화유산에 관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수경)는 1월 21일 <불교무형문화유산 종목 조사보고서>를 출간했다.

보고서는 불교무형문화유산을 불교 의례·불교예술·불교생활으로 나눠 2008년 7~12월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불교무형문화유산의 국가 지정현황 △불교무형문화유산의 종목 분류 △현행 불교의례와 행사 등이 수록됐다. 수경 스님은 "불교 유형문화재는 사

찰에서는 성보로 봉안되고 소장 박물관에서는 주요 유물로 보존중이나 무형문화재는 현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었다"면서 "현재 전승되고 있는 불교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파악하고 전승해야 할 불교무형문화유산의 내용을 파악해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참선수행도량으로 꾸릴 것"

## 부산 선암사 내홍 끝... 원범 스님 주지 진산식

주지 임명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부산 선암사찰 선암사가 1월 28일 대웅전에서 주지 진산식을 갖고 화합과 수행도량으로의 재도약을 발원했다.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행사에서 원범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여러 가지 일들로 주지소임에 소홀해 아쉬웠던 만큼, 앞으로

임기 4년간 선암사 신도들을 위한 진정한 주지로서 참선수행도량으로 잘 꾸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암사는 2008년 9월경 원범 스님의 전 주지 임기만료 후 분산인 범어사에서 임명한 재산관리인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주지 임명이 늦어지자 주지 소임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박지현 기자

# "종조 가르침 이어 밀교 중흥"

## 총지종 종조 탄신102주년

총지종(총리원장 원승)은 1월 29일 서울 총지사에서 '원정(苑淨) 종조 탄신 10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종령 효강 정사

는 "법신부처님의 가르침을 선시(宣示)하신 대성사님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린다"며 "종조탄신일을 맞아 종조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 밀교중흥의 가치를 드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주)경인메카트로닉스 NAVER 지식검색 마미로봇

# "복지 예산 늘려 이웃 도움 것"

## 봉은사 2009년 중무계획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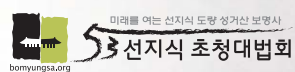
봉은사가 2007년 12월 재정을 공개한 데 이어, 2009년 중무계획에 신도회 임원을 참여시키며 투명사찰경영을 선언해 주목받고 있다. 봉은사는 1월 22일 경내 선불당에서 주지 명진 스님과 진화 스님(총무부장), 신도회 황남수 회장, 황채운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중무계획' 예산과 주요 사업을 확정·발표했다. 명진 스님은 "사부대중 참여가 늘어나 주인의식이 높아지고, 그것이 불교를 위한 것"이라며 "신도는

자신의 시주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봉은사의 재정 공개에 따르면 2007년 3700가구, 2008년 4100가구가 신규 신자로 등록했고, 총 신도등록 가구는 4만여 가구(20만명 추정)에 이른다. 2009년 예산은 114억원으로 2008년 보다 10% 증가했다. 명진 스님은 "복지 예산을 확충해 공부방 운영 등 어려운 이웃을 도움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東大 한의·물리학

## 최우수 평가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동국대(총장 오영교) 한의학과 물리학 분야가 최우수, 경제학 분야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월 29일 '2008년 학문분야 평가결과발표 및 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 평가결과 한의학분야는 동국대(경주캠퍼스) 등 6개교가 최우수, 경원대 등 4개교가 우수대학으로 꼽혔다. 물리학분야는 동국대(서울캠퍼스) 등 18개교가 최우수, 강원대 등 14개교가 우수대학에 평가됐다. 경제학분야는 경희대, 건국대 등이 최우수, 동국대(경주캠퍼스) 등 19개교가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조동섭 기자



# 선지식 도량 건립을 위한 보명사 천일기도 및 땅한평사기

귀의 삼보 하옵고,

천안(天安) 성거산(聖居山) 보명사!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땅이니 天安이라 하며 이렇게 복된 이름을 지니는 까닭은

남서 화산(華山)과 북동 성산(聖山)의 가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이러한 북동 성산의 신령스러움에 감흥하여 성인이 머무르만한 곳이란 뜻으로 聖居山이라 이름 짓고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역대왕들이 재(齋)를 올려 국운창성과 민안(民安)을 기원하였으며 지금도 면면히 맥을 이어오고 있던 중 성산(聖山)의 문을 열어 보명(普明)을 일구고 화엄(華嚴)을 설하신지 20여 성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선제가 되고, 때로는 선지식이 되었으며, 때로는 또 다른 선지식을 모시거나

배출하는 사자(侍者)의 기쁨과 사자(師子)의 복을 사부대중과 함께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대소 불사도 원만 성사되어 제법 가람의 모습도 갖추고 53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비롯한 끊임없는 기도과 수행정진으로 천안지역을 넘어 전국의 주목을 받으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선도적 포교 활동도 원만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보명사의 터 - 5만여평이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확보해야 할 중차대한 불사입니다.

이제 시절인연이 도래하였으므로 여법한 부처님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천일기도 및 땅 한평 불사"를 불자님들과 함께 봉행 하고자 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대해를 이루듯 불자님의 발심은 성거산을 영원한 부처님 도량으로

이루어 세세생생 선지식을 만나며, 머물게 하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부디 무무 동참하시어 법을 전하고 복 받음의 기쁨을 나누어 행복한 삶으로 회향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바사석가모니불

선지식도량 건립불사위원회



충남 천안시 서거읍 송남2리 117-1  
TEL.041-522-3362 FAX.041-523-3361  
www.bomyungsa.org

## 불사동참방법

불사에 마음내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일기도 및 땅한평사기 불사에 동참하신 모든 가정에 화목함이 샘솟고 일터와 인연들은 원만하게 성취되며 불보살의 가피력과 은혜가 충만하여 세세생생 좋은 곳에 태어나 좋은 스승 만나 법교 함의로서 성불하길 바랍니다.

- 땅한평 : 5만원 (1구좌(10평) : 50만원) \* 총면적 : 5만평
- 천일기도 : 200만원(분할납부 가능) \* 각 백일기도는 2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7235-63 대한불교조계종 보명사 우체국 311993-01-002169 대한불교조계종 보명사

불사에 동참하신 분은 사적비에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 천일기도

|     | 기 도          | 양 력        | 음 력         | 요 일 |
|-----|--------------|------------|-------------|-----|
| 입재  | 신묘장구대다라니 21독 | 09년 2월 12일 | 09년 1월 18일  | 목   |
| 2차  | 아미타경         | 09년 5월 23일 | 09년 4월 29일  | 토   |
| 3차  | 금강경          | 09년 8월 31일 | 09년 7월 12일  | 월   |
| 4차  | 자비도량 참법      | 09년 12월 9일 | 09년 10월 21일 | 수   |
| 5차  | 발심수행장 3독     | 10년 3월 19일 | 10년 2월 4일   | 금   |
| 6차  | 관세음보살 보문품    | 10년 6월 27일 | 10년 5월 16일  | 일   |
| 7차  | 원각경 보안보살장    | 10년 10월 5일 | 10월 8월 28일  | 월   |
| 8차  | 보현행원품        | 11년 1월 13일 | 10년 12월 10일 | 화   |
| 9차  | 금강경          | 11년 4월 23일 | 11년 3월 21일  | 금   |
| 10차 | 108참회        | 11년 8월 1일  | 11년 7월 2일   | 월   |
| 회향  |              | 11년 11월 8일 | 11년 10월 13일 | 화   |